

[ 국제 ]

■ 김계관-힐 獨 베를린 전격 회동



〈北 김계관 부상〉

# 6자회담 조기 재개 탄력받나

북핵 6자회담의 재개 분위기가 갈수록 농후해지고 있다. 우선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 사이에 16일 독일 베를린에서 이뤄진 극비 회동 사실이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베이징(北京)이나 미국의 도시가 아닌 베를린이라는 협상장소가 말해 주듯 형식이 구제되지 않고 양측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협상의지'를 말해준다는 분석이다.

외교소식통들은 이 시점에서 성사된 베를린 회동에 대해 지난달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이른바 '패키지딜'에 대해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이번 회동에서 미국의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첫 회동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번 북미 회동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최근 9·19공동성명 초기 이행조치와 상응조치를 묶은 '패키지딜'을 제시하며 북한과 실질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런 점을 북한이 알고

### 北이 먼저 제안...美 '패키지 딜' 반응 보였을 것

### 송민순 "북·미 회동서 초기조치 이행방안 마련"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동이 열렸다는 게 정부 당국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북한이 BDA 선(先)해결 요구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지만 'BDA 해결이 안되면 초기단계 조치에 합의하더라도 이행은 할 수 없다'는 등의 전제를 내세우며 초기단계 이행조치 논의를 시작하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베를린 회동을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부상 입장에서 앞서 6자회담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할 생각이 없다면 굳이 만나자는 제안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BDA 선(先) 해결에 대한 교조적 짐착에서 조금씩 유연성을 보이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서울의 외교가에서는 6자회담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특히 힐 차관보와 김 부상이 현지 시간 17일 오후(한국시간 17일 밤~18일 새벽) 베를린에서 이틀째 회동



〈美 힐 차관보〉

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동에서 양측이 차기 회담에서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데 합의한다면 차기 회담 일정이 조기에 잡힐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의 외교가에서는 오는 22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BDA 회동에 이어 순차 개최되는 형태로 날짜가 잡힐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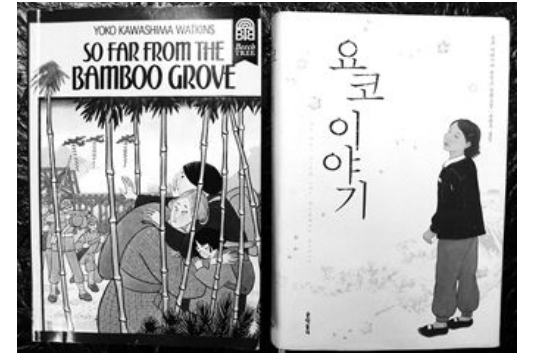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19~21일 한중일 3국을 돌며 회담 전략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차기 회담 일정은 다음 주 중에는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이번 베를린 회동과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9·19 공동성명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대한 합의의 바탕이 이번 회동에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인이 日 소녀 강간' 美 교재 파문

한국인을 냉혹한 가해자로 묘사

한인 학생·학부모들 강력 반발



일제 말기 한국인들이 일본 아녀자들을 위협하고 강간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실화소설이 미 전역의 중학교 교재로 사용되고 있어 일부 한인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학부모들이 교재사용 금지 운동을 펼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베리아에서 6년간 복역한 일제 전범의 딸인 요코 가와시마씨가 쓴 이 책은 특히 대부분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 일제 당시 한국인들이 선량한 일본인들을 학대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것처럼 묘사, 미국 청소년들의 한국 인식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내 상당수 중학교에서 영어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요코 이야기(so far from the bamboo grove : 대나무 숲 저 멀리서·사진)'는 일제 말기인 1945년 7월 함경북도 나남(청진시)에 살던 일제 고관의 딸인 요코씨가 어머니, 언니와 함께 한국을 빠져나가 일본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당시 11세였던 요코씨는 모친, 언니와 함께 남방에서 기차를 타고 원산 이남까지 왔다가 폭격으로 기차가 부서진뒤 걸어서 서울에 도착했으며, 이어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갔는데 한국인들의 무자비한 추적을 극적으로 피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강간이 자행되는걸 목격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 사실들에 따르면, 1945년 7~8월엔 미군이 북한지역을 폭격한 적이 없으며 일본군이 여전히 한반도 전역을 장악하고 있어서 공산

군이 대낮에 일본인들을 추격했다거나 일본인 아녀자들을 강간했다는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코씨는 이 책에서 만주에서 근무했던 아버지가 전쟁에 반대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베리아에서 6년간이나 복역한 전쟁범죄자이며, 요코씨의 오빠는 자살공격으로 유명한 가미카제 훈련프로그램인 '요카렌(Yokaren : 豫科練)'에 지원했다고 책에 명기돼 있다.

이처럼 '요코이야기'의 폐해가 확대됨에 따라 뉴욕과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지역 등의 한인 학부모들은 이 책을 학교 교재에서 제외해달라는 조직적인 운동에 나섰으며, 주미 총영사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돼 이 책의 교재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한편 이 책은 서울 시내 외국인 학교에서도 역사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대문구 연희동 서울외국인학교에 따르면 문제의 책은 이 학교 7학년 과정의 '사회문화'과목의 정식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보스톤·뉴욕·연합뉴스

### 美, BDA 北 동결자금 일부계좌 해제 검토중

미국 정부는 마카오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동결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2천400만달러의 전체 동결자금 중 합법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몇몇 관리들은 미국 정부가 이제 BDA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며 이같이 말했으나 이는 안보리 대북 제재나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및 무기거래 단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의명을 요구한 한 관리 "재무부 회계원들이 많은 BDA 북한계좌들을 비교 검토하고 있다"며 합법화 동 관련 계좌들은 불법계좌들과 구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불법계좌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미국측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BDA문제의 종결을 바라고 있다고 이 관리가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반기문 총장, 부시와 첫 회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워싱턴을 공식 방문,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시 부시 미 대통령과 공식 면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반 총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 레바논과 소말리아 분쟁 등 국제적인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연합뉴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워싱턴을 공식 방문,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시 부시 미 대통령과 공식 면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반 총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 레바논과 소말리아 분쟁 등 국제적인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연합뉴스

### 후세인 이북동생 처형 前

### 潘 총장에 구명편지 보내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이북 동생이자 전 정보 국장이었던 바르잔 이브라힘 알-타크리타가 사형이 집행되기 1주일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구명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AP통신이 확보한 편지에 따르면 이브라힘은 "나는 1982년의 두자일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며 "목숨의 위협을

받는 나를 구해주기 위해 개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문으로 된 편지는 이브라힘이 자필로 썼다. 편지를 쓴 날짜는 1월 8일이었다.

이브라힘은 "당시 내가 이끌던 정부 기관은 두자일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며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의 증거자료들은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의 서명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브라힘과 아와드 알-반다르 전 혁명재판소장은 1982년 두자일 마을의 시아파 148명을 집단 살해한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15일 새벽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브라힘은 교수형 집행 과정에서 목이 잘렸다. /애펬AP·연합뉴스

### 바그다드 연쇄폭탄 테러...80여명 사망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동부의 한 대학 근처에서 16일 차량폭탄 등이 터져 최소한 65명이 숨지고 138명이 부상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라크 보안 관리들은 자살폭탄과 부비트랩이 설치된 차량이 무스탄시리아 대학 입구에서 폭발, 방과 후 집으로 향하던 학생과 교직원들이 주로 희생됐다고 전했다. 무스탄시리아 대학이 위치한 곳은 시아파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AP는 이라크 경찰을 인용, 오후 3시 45분께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미니밴들을 타고 있을 때 미니밴 2대가 폭발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45분 후 바그다드 북동부 시장에서도 미니밴과 모터사이클을 탄 과한들이 자동차기를 발사, 주민 1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바그다드·AP·연합뉴스

### 현대중 직원 1명 나이지리아서 또 피습

나이지리아 리버스주 지역에서 현대중공업 직원 1명이 현지 무장괴한 들로부터 습격당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7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대중공업 공장 문모(43)씨가 17일 새벽 1시(한국 시간)에 리버스주 지역에서 일행 9명

과 30인승 보트로 이동 중 보트에 난입한 무장괴한들로부터 총격을 받아 대퇴부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문씨는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 '식구 많은 집' 男 위암 발생률 높다

형제자매가 많은 집 남자는 식구가 많지 않은 집 남자보다 위암-위궤양 등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따라서 위암 발생률도 상당히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연구의 세계적 권위인 미국 뉴욕 대학 메디컬센터 미생물학교수 마틴 블레이저 박사는 의학전문지 '공중과학도서관-의학 최신호(1월16일자)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서 형제자매가 6명 이상이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남자는 형제자매가 1~3명인 남자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1.7~2.2배 높으며 특히 막내인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고 밝힌 것으로 헬스데이 뉴스가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누구나 합격가능

## 공무원 시험 대비 특강

고정지

전남고시학원

모든 시험 합격가능의 100% 보장

## 중개사 특강

소수집 예반

전남고시학원

#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2:1

주택관리사

광주고시학원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한국수석합격자 배출 13,14회

2월 1일

합격률 1위!

새빛 행정고시학원

# 한길컴퓨터 정비전산학원

매일초개강!

522-9119